

10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23.43 (-12.50)	706.20 (-8.26)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2.880 (-0.017)	1344.15 (+4.35)

증권업 진출 특혜의혹... 생보사 자회사 승인도 빨간불

흔들리는 100년 은행

③ 우리금융 비은행 강화 위기

‘자본잠식 상태’인 포스증권 어음 발행에 초대형 IB 인가 면제 경영평가 3등급 이하 받으면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무산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뿐만 아니라 오랜 숙원이던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주 계열사란 장점을 활용해 초반 기초를 잡아야 하지만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포스증권 인수와 동양생명·ABL생명 패키지 인수과정에서 특혜 의혹 등 잡음이 나오고 있어 임종룡 회장의 진퇴가 복잡해질 전망이다.

◆ 비은행 인수 과정 임종룡 압력 행사 의심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일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정기검사 절차에 돌입했다. 정기 검사는 다음달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의 화두인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을 비롯해 우리금융의 증권업 진출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보험사 인수·합병(M&A) 관련 자본 적정성과, 인수 당시 상황, 경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5월 한국포스증권(포스증권)을 인수하고 우리종합금융과 합병, 우리투자증권을 설립해 지난 8월 출범했다. 다만 포스증권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인수에 대한 물음표가 나왔다.

포스증권은 온라인으로 펀드를 파는 소형 증권사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증권사이기 때문이다.

포스증권은 지난해 매출 139억6000만원, 영업손실 59억1000만원, 순손실 59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72억7000만원) 대비 순손실 폭은 19% 줄었지만 만성적자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순손실 규모는 360억원이다.

지난해 60억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포스증권의 결손금 규모는 지난 2022년 약 147억원에서 지난해 207억원까지 증가했다. 포스증권의 자본총계는 지난해 말 기준 485억원으로 포스증권 자본금(698억원)이 자본총계를 웃도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포스증권 인수를 통해 확보한 라이선스는 펀드 판매와 관련한 제한적 투자중개업과 투자매매업 인가 등이다. 경쟁 증권사가 보유 중인 집합투자업과 장내·외 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라이선스는 없다. 즉, 반쪽짜리 증권사란 얘기다.

또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만 자체 신용을 통해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종금에 증권업을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해 자기자본 1조 5000억원으로도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대주주 적격성 등을 조사하는 초대형 IB 인가도 면제되면서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우투증권에 자기자본의 200%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넣었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발행어음 사업은 원래도 자기자본 200% 한도 내이기 때문에 규제가 아니다.

임 회장이 증권업 진출에 대한 부담



추석연휴 인천공항에 120만명 몰린다

1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가 이번 추석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총여객 120만 4000명(일평균 20만 100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역대 추석연휴 최다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이전 추석 연휴 최고치인 2017년의 18만7623명보다 7%가량 높다.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18일로 21만 3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뉴시스

1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질 경우 우투증권의 신규 사업 진출은 어려워진다. <3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은행장들 만난 이복현 오락가락 대출정책 “불편함 드러 송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로 시장에서 혼란이 야기됐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가계대출을 엄정 관리하는 기조 자체는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 은행 은행장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관련 대책을 논했다. 이날 간담회와 브리핑은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자율적 관리 방식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말을 꺼낸 후 처음 가지는 공식적인 자리로 이목을 끌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과 이에 따라 국민과 은행, 은행 창구 직원들에게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원회와의 불협화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내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간담회에서는 가계대출과 관련한 ‘은행의 자율적 관리’가 주요 논제로 떠올랐다.

이 원장은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 심사에 대해서는 은행장이 특정 기준을 세워서 운영하되, 일부 ‘그레이존(회색 지대)’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관리 편차를 언급하며 “공통 이슈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일률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정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출 관련 가이드라인이 도출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각 은행의 포트폴리오 현황이라든가 전체 리스크 관리 관련된 사항이 각기 달라 대출 실수요자 구분을 획일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신규 해운동맹 결성... 23.5조 투입해 바닷길 넓힌다

HMM ‘2030 중장기 전략’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구축 친환경 설비에 60% 투자

“HMM을 떠올리면 친환경 해운 회사로 연상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내 대표 해운사 HMM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총 23조 5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HMM은 글로벌 주요 선사와 2025년 2월부터

협력기간을 5년으로 하는 신규 협력체제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결성했으며, 2030년까지 총 23조5000억원, 특히 전체 투자금액의 60%를 차지하는 14조 4000억원을 친환경 설비에 투자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HMM은 10일 여의도 파크원타워에 있는 HMM본사에서 ‘얼라이언스 결성 및 2030 중장기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경배 대표이사는 “2030년에는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운업계 최대 화두인

환경 이슈를 해결하고 친환경 해운 회사로 연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MM은 기존 ‘디 얼라이언스’ 파트너인 ONE(일본), Yang Ming(대만)과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협력체인 프리미엄 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 이와 동시에 세계 1위 선사인 MSC(스위스)와 북유럽 및 지중해 항로에서의 선복교환 협력에 최종 합의했다. MSC와의 협력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4년간이다.

HMM 관계자는 “프리미어 얼라이언

스 + MSC 협력체제를 통해 원양항로 네트워크 증대, 기항 항만·국가 확대, 운송 선복량 확대 등 타 협력그룹 대비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신규 협력 서비스 항로는 기존 ‘디 얼라이언스’ 체제의 26개에서 30개로 늘어난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오세훈 “주거 교육비 부담에 출산 망설이지 않게 지원할 것”
▲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신속 출범해야” /사진 뉴시스

▲ 野 ‘친일외교’ 조태열 장관 고발에 외교부 “대단히 유감” /사진 뉴시스
▲ 교육부-항공우주산업 맞손, 고졸인재 방산 분야 진출 돕는다



▲ 조국 대표 “민주당에 양보? 군수선거는 대선 아니냐” /사진 뉴시스
▲ 정책지원관 전원 전보 낸 서울시의회, 시행령 위반 논란